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신고 지원·협조

1. 귀 단체(기관)의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앱, 포털) 플랫폼을 개통('20.3.26.)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행정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이에 국민들이 정확하게 신고방법을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전파하는데 귀 기관·단체로부터 아래와 같이 지원을 받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협조사항) 주변에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방법 전파·홍보 및 본인이 직접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발견시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신고
 - 나. (신고방법) ① 자가격리 위반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거주지 등)와 ② 위반 중인 현장 사진(얼굴이 나오도록 촬영 신고)이 필수 포함되도록 신고
4. 아울러, 신고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의해 철저히 비밀보장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안전신문고 활용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신고 운영 안내 1부. 끝.

안 전 개 선 과 장

수신자 (사)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장,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한국방재협회장,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총재, (사)양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 한국자율방범중앙회장,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장,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 사랑실은교통봉사대장, (사)대전자전거동호인연합회장,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사)녹색어머니회장, (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회장, 꾸러기수비대장,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행정사무관 이금경 기술서기관 박범수 안전개선과장 김재흠 전결 2020. 4. 6.

협조자

시행 안전개선과-1603 접수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504호

전화번호 044-205-4231 팩스번호 044-205-8939 / ds4ach@korea.kr / 대국민 공개